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흡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오 태 희** · 이 장 언***

논문 초록 부모의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23년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가구와 자녀 세대를 연결한 표본을 구축한 후 자산의 형태별(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규모를 통해 측정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모의 재력 부족이 자녀의 고용의 질 및 임금 경로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흡수저 디스카운트 효과(Wooden-spoon Discount Effect)가 포착되었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 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약 8% 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도 11% 낮는데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하는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흡수저 디스카운트,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한국노동패널, 신용계약 완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6, J3

투고 일자: 2022. 10. 31. 심사 및 수정 일자: 2022. 12. 13. 게재 확정 일자: 2022. 12. 26.

*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인하대학교 김진방 교수, 서현덕 교수 및 윤영진 교수, 서울연구원 변금선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선임연구위원 및 2022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하고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논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제1저자,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 e-mail: thoh@bok.or.kr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jylee22@inu.ac.kr

I. 서 론

부모의 재력이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즉,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자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2018년 취업플랫폼 업체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실시되었다. 이들이 성인남녀 1,33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0.3%가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 및 재력이라는 응답 비중(37.1%)이 개인의 역량(18.1%), 인맥(11.5%), 성실성(10.4%), 학벌(8.3%)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뿐만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청년층 사이에서 고조된 가운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미래소득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주장 또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관련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부모의 소득 및 교육 수준을 통해 이들의 경제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i) ‘자녀의 발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Brooks-Gunn et al., 2003; Hill and Duncan, 1987; Huang et al., 2010), (ii)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Reynolds, 1992; Smith et al., 1997; Conger et al., 2010), (iii) ‘자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Bladen et al., 2005; Dahl and Lochner, 2012; 김진영·김성태, 2013) 등을 주로 논의해왔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와 관련한 많은 연구는 부모의 소득을 경제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임금 등 다양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ahl and Lochner, 2012).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아닌 자산이 자녀의 교육 및 임금 수준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산 혹은 재력은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과거 소득 활동의 결과 혹은 기존의 세대로부터 이전을 통해 보유

하게 된 누적된 경제력을 나타내며 이는 인적자본 형성 및 후생을 높이는데 필요한 미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Sherraden, 2005). 또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소득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Karagiannaki, 2017). 실제로 Belfield et al. (2018)은 동일 기관에서 동일 수준의 능력(학력 및 전공)을 보유하였더라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자녀의 소득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미래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진입 초기 단계의 자녀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합도가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여타 조건이 같은 경우 경제력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인적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나은 일자리와 매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ecker and Tomes, 1979; Loury, 1981).

한편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들로 (i)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 (ii) 자녀의 구직 및 창업 과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도움, (iii) 자녀에게 직접적인 자산 이전이 주로 언급된다. 그런데 부모가 보유한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들을 합산한 순자산(혹은 총자산)이라는 단일변수를 사용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만이 서로 다른 자산 중 특정 자산의 보유가 다른 형태의 자산보다 자녀의 성과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있다(Conley, 2001; Shanks, 2007; Zhan, 2006; Zhan and Sheraraden, 2003, Huang et al., 2010; Karagiannaki, 2017). 즉,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정은 부모의 자산 보유 형태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은 그 보유 형태에 따라서 수익성,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성이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지 않고 충분한 직장탐색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자산이 부동산 및 여타 자산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Karagiannaki, 2017).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재력이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실증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의 경제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순자산(혹은 총자산)과 같은 총량 변수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따라 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자산의 특성별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산변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하고 일시적 충격으로 인한 자산가치 변화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서 관측된 자산보유액을 사용하기보다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다기간에 걸쳐 관측된 자산의 평균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산 수준이 아닌 자산별 보유액에 따라 그룹화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와 그 구성원 각각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2~24차(199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의 경제력 부족이 자녀가 졸업 직후 취업 여부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교육 수준, 성별 등 인구·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와 그 규모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는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부동산 및 부채 보유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 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 부모의 자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약 8% 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도 11% 낮았다. 셋째, 부모의 자산 보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선형성이 존재하며 이는 유동성 제약이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이전(혹은 세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자산 보유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혹은 차입제약의 완화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 수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자산의 추가적인 증가가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흡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층 구직자의 충분한 직장탐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동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을 따지지 않는 양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주로 위치하는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노동시장 내 이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유동성 제약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한 인적자본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와 매칭이 이루어졌더라도 현 직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본인의 실제 능력과 더 부합하는 일자리로 이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격차를 사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테히·이장연, 202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표본 구성 및 주요 변수들을 설명한 후 실증분석 모형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흡수저 디스카운트’ 효과의 존재 여부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연구 결과의 함의 등을 정리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표본 선정

본고는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를 연결할 수 있고 분석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구사회 및 경제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표본 수 확보가 가능한 KLIPS를 이용하였다. KLIPS는 1998년 비농촌지역이 거주하는 5천 가구와 동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최초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자산, 노동시장

성과, 교육훈련 등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 자료이다. KLIPS는 가구 자료와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개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본으로 추출된 원 가구에서 결혼이나 분가 등으로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계속 포함하여 추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KLIPS 2~24차(199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가구와 자녀 세대를 연결한 표본을 구축한 후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 먼저 KLIPS의 개인 자료에서는 교육 수준,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근로 여부, 임금, 근로시간,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및 위치,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여부 등 일자리의 특성, 거주지역,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가구 자료에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근로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 등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후 가구 고유번호(HHID)를 통해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가구와 개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통합 표본을 구축하였다.

표본 설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우선 자녀의 관측치를 중심으로 HHID를 통해 부모 가구와 연결할 수 없는 관측치를 제외한 결과, 7,305명의 77,528개로 구성된 원자료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노동시장 최초진입 및 근무경력의 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관측치를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노동시장 진입 이후 대학 진학, 군 복무 등으로 추가적인 근로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학업을 완전하게 마친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 진입 시점에서의 일자리의 질 및 진입 후 최초 수년간의 임금 변화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관측치 중 자녀의 나이가 20세 미만 혹은 35세를 초과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진입 이전 시점의 관측치를 제거하였으며 이후 실제 취업한 개인들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²⁾³⁾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경력개발 초기에 발생

1) 최초 조사(1차, 1998년)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일부 변수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최초 조사 시점부터 집계된 가구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교육 수준 등의 일부 시간 불변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 본 연구는 분석 대상 기간 중 응답한 학력 수준 중 가장 높은 학력을 최종학력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현재 교육 수준과 최종학력이 처음으로 같아지는 때를 노동시장에 진입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하는 임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첫 직장을 가진 시점 이후 최대 5년까지의 관측치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 표본으로 1,753명(남성 860명, 여성 893명)의 8,569개(남성 4,190개, 여성 4,379개) 관측치로 구성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된 불균형 패널을 선정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Sample Selection

Exclusion criteria	# of individuals	# of observations
▪ Raw data	7,305	77,528
▪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4,015 (△3,290)	50,396 (△27,132)
▪ Age < 20 or Age > 35	3,926 (△89)	31,176 (△19,220)
▪ Difficulties in identifying initial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1,753 (△2,173)	11,868 (△19,308)
▪ Work experience > 5 years (final sample)	1,753 (-)	8,569 (△3,299)
- Male	860	4,190
- Female	893	4,379

Note: The numbers in parentheses show a decrease in individuals and observations after applying for each sample selection criterion.

2. 주요 변수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고용,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및 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 가구로부터 (i)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으로 측정한 자산 규모, (ii) 근로,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 등으로 측정한 가구소득, (iii) 실업 여부 및 (iv) 최종학력 변수를, 자녀 세대로부터 (i) 고용 여부, (ii) 기업 규모 및 정규직 여부로 측정한 고용의 질, (iii) 근로소득, (iv) 거주지, (v) 건강 상태 및 (vi) 최종학력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⁴⁾ 또한 자산가액, 소득 등과 같은 명목변수들은 2020년

3) 분석 대상 기간 중 취업 이력이 없는 근로자 중 일부는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 이력이 있는 근로자와는 상당한 이질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첫 조사가 시작된 시점 이전부터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최초진입 시점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본 고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거주지 정보는 조사 시점에서 자녀의 거주지를 나타내며 부모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일부의 극단적인 소득 및 자산 관측치가 추정 결과 전체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상·하위 1.0%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요 기초통계는 〈Table 2〉에 요약하였으며, 향후 분석에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Child ¹⁾			Parents	
	All	Male	Female		
Share (%)	100.0	49.1	50.9	Male household head (%)	92.8
Average age	24.9	26.1	23.7	Average age	55.0
Educational attainment (%)				Average housing assets (10,000 won)	
- Associate	36.0	33.8	38.1	- 1 st quartile	5,649
- Bachelor	56.2	56.4	56.0	- 2 nd quartile	15,344
- Master or higher	7.8	9.8	5.9	- 3 rd quartile	26,809
College entrance exam (%)				- 4 th quartile	70,041
- Top tier	4.7	5.2	4.1	Average financial assets (10,000 won)	
- Second tier	3.1	2.9	3.4	- 1 st quartile	589
Health status is bad	1.0	0.8	1.1	- 2 nd quartile	1,363
Residence (%)				- 3 rd quartile	2,657
- Seoul	22.4	20.1	24.6	- 4 th quartile	8,755
- Gyunggi	19.5	19.2	19.7	Average debt (10,000 won)	
- Metropolitan City	34.9	35.9	33.9	- 1 st quartile	39
Year of birth (%)				- 2 nd quartile	1,755
- 1970~1980	34.2	39.5	30.1	- 3 rd quartile	4,022
- 1981~1990	44.0	42.0	45.9	- 4 th quartile	14,726
- 1991~2000	21.8	18.5	25.0		
Salary (10,000 won)	183.9	208.2	162.8		
(standard deviation)	(77.0)	(81.3)	(66.4)		
Large firm (%) ²⁾	29.7	32.0	25.1		
Irregular worker (%)	26.5	21.5	31.0		

Notes: 1) Each figure is measured at the first wave when the child's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is equal to their final one.

2) I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300, it is categorized as a large firm.

거주지와 상이할 수 있다.

자산 및 부채 부모의 재력을 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로 각각 구분하였다.⁵⁾ 부동산은 현재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 거주 중인 주택자산의 시가액을,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액에 비거주 중인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금융자산은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미수령 겹돈, 사적 대출 및 여타 금융자산 금액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부채총액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및 사적으로 빌린 금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다.

근로소득 응답자가 월평균 세후 임금(임금근로자) 혹은 월평균 순수입(자영업자)을 보고하였다면 이를 추가조정 없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질문에는 무응답이었지만 연간 세후 근로소득에 대해 응답한 경우에는 이를 월 급여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첫 일자리의 질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일자리가 ① 졸업 후 취직까지의 기간 및 ② 일자리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당수 청년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직장탐색 및 실업 기간을 거치는 경향을 보인다(Emmenegger et al., 2012; 이왕원·김문조, 2015).⁶⁾ 이러한 실증적 규칙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력 수준과 연구기간 중 응답한 가장 높은 학력이 같아지는 시점부터 2년 이내 취업하거나 자영업자로 종사하는 경우 동 근로자가 학업을 마친 후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⁷⁾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대기업-정규직으로 대변되는 1차 노동시

5) 본 고에서 사용한 자산 및 부채 변수는 가구 기준으로 집계하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의하면 ‘부모의 자산’보다는 ‘부모가 가구주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 가구로부터 분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에는 이들이 새롭게 축적하는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이 부모의 자산을 과대평가할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고에서 분석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이러한 자녀의 추가적인 자산 및 부채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6) 2021년 5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약 10개월이며, 전체 취업자 중 26.7%가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개월 미만 47.4%, 3~6개월 14.1%, 6~12개월 11.9%, 1~2년: 11.7%, 2~3년 6.8%, 3년 이상 8.2%).

7) 예를 들어 A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인데 2006년 현재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고

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2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분절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종업원 수가 300인을 상회하면서 정규직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건강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만성적인 질환의 보유 여부 등은 소득 및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Currie and Madrian, 1999; French, 2005; Luft, 1975; Poterba et al., 2017).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본고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 상태(self-evaluated health condition, SEH)를 ‘나쁨’이라고 응답하거나 혹은 육체 활동의 제약요인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간주하고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⁸⁾

대학진학 시험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교육 수준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최종학력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률이 2021년에 73.7%에 달하고 있지만, 대학별로 졸업생들의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 비율, 취업 초기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종학력 및 인구사회적 변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태도, 가치관, 성장잠재력 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KLIPS에서 제공하는 범주형 대학 진학 시험(학력고사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 변수를 사용하여 최상위권(학력고사 301점 이상, 수능(200점 만점) 171점 이상, 수능(400점 만점) 341점 이상) 및 차상위권(학력고사 281~300점, 수능(200점 만점) 161~170점, 수능(400점 만점) 321~340점) 변수를 생성하여 통제하였다.⁹⁾ 또한, 대학 진학

2008년 중 입사하였다면 동 근로자가 졸업 후 취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8) KLIPS는 ‘현재 건강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의 척도로 개인이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1. 아주 건강하다 / 2. 건강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5. 건강이 아주 안좋다). 본 연구에서는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혹은 ‘5. 건강이 아주 안좋다’를 선택한 경우 동 개인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나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9) KLIPS는 학력고사 및 수능(200점 만점 및 400점 만점 기준 별도 제공) 시험 결과를 각각 12개의 범주로 나눈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0점 만점 수능점수의 경우 341점 이상(범주 12) 및 140점 이하(범주 1) 범주와 141~340점 구간내 포함되는 점수에 대해서는 20점씩 증가하는 형태로 결과를 포착하는 10개(범주 2~11)의 범주(101~120점, 121~140점

시험 결과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관측치를 제외하지 않기 위해서 ‘대학 진학 시험 결과 응답 불응’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3. 실증분석 모형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 흐름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녀는 초기 직장탐색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 특히 보유자산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소비, 근로 및 저축 선택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미래소득을 이용한 소비 평활화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자산보유액이 소비에 필요로 하는 규모를 상회하더라도 자산의 형태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상당한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보다 금융자산이 소비 또는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은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매각을 통해 쉽게 현금화하기는 어렵지만,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동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한 환경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부동산 보유 규모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부모의 자산 보유 규모 및 형태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식 (1) 과 같은 형태의 축약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Y_{it} = \beta_0 + \beta_1 W_{it} + X_{it}\gamma + Z_i\xi + \tau_t + \epsilon_{it}, \quad (1)$$

여기서 Y_{it} 는 개인 i 의 t 기에 관측되는 분석 대상 변수의 값을 나타낸다. W_{it} 는 부

등)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의 총자산(혹은 순자산)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주요 설명변수다.¹⁰⁾ X_{it} 및 Z_i 는 각각 시간가변 및 시간불변의 통제변수이며, τ_i 는 연간 더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식 (1)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관측 가능한 자산변수가 부모의 경제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시소득이 아닌 항상소득의 변화인데 현실에서 관측되는 자산보유액은 다양한 일시적 충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 충격을 분리해야 하지만 자산가치 변화 중 항상소득의 변화만을 엄밀하게 식별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자산 규모는 많은 경우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자산에 대한 계수가 회석편의로 인해 과소 추정될 수 있다(Brenner, 2010; Charles and Hurst, 2003; Solon, 1992).

둘째,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미래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로 유동성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부모의 총자산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 자녀가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적합도가 높은 일자리와 매칭 되도록 돕는 데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Becker and Tomes, 1979; Loury, 1981).¹¹⁾

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소득은 자산에 비해 실업,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복수의 기간에 걸친 평균값을 사용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Conley, 1990). 따라서 소득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을 포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보다는 자산이 더 나은 대리변수일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항상소득이 생애 부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소득보다는 자산이 부모의 경제력에 대한 더 나은 대리변수일 수 있을 것이다.

11)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모두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며 상당 기간의 소득 흐름의 결과가 자산의 형태로 축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두 요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경로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선행연구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자녀에게 서로 다른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Conley, 2001; Keister and Lee, 2014; Pfeffer, 2018; Spilerman, 2000; Wiborg, 2017). 첫 번째로, 자산은 소득보다 개인의 생애 주기 및 세대간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두 번째로, 소득은 실업, 경기변동, 승진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자산은 경기변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소득 보다 가족 규범 및 생활 습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높은

한편 부동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담보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부모의 부동산 보유 정도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금융자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산별로 상당한 이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혹은 총자산과 같은 총량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다(Karagiannaki, 2017). 예를 들어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던 가구가 정부 지원으로 500만원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500만원의 추가적인 자산증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자산 규모의 변화가 개인의 선택에 상당한 역할을 미치지만,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선택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과 같은 선형모형을 사용한다면 계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Karagiannaki(2017) 및 Charles and Hurst(2003)을 바탕으로 아래의 식 (2)를 실제 실증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Y_{it} = \beta_0 + \sum_{j=1}^3 \beta_j^F D_{ji}^F + \sum_{j=1}^3 \beta_j^H D_{ji}^H + \sum_{j=1}^3 \beta_j^D D_{ji}^D + X_{it}\gamma + Z_i\xi + \tau_t + \epsilon_{it}, \quad (2)$$

$$\text{where } D_{ji}^k = \begin{cases} 1 & \text{if } \underline{W}_i^k \leq \overline{W}_i^k < \overline{W}^k,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overline{W}_i^k = \frac{1}{T_i} \sum_{t=1}^{T_i} W_{it}^k,$$

$$k \in \{F, H, D\}, \quad j \in \{1, 2, 3\}.$$

식 (2)는 식 (1)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요 설명변수로 특정 시점에 관측된 부모의 총자산 보유액(W_{it})이 아닌 자산 보유 형태에 따라 금융자산(W_{it}^F), 부동산(W_{it}^H) 및 부채(W_{it}^D)로 구분하여 각각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자산가치의 변화 및 측정오차와 그로 인한 회석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를 가진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자신의 현재 사회경제적 위치를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체화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의 경제적 성과와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특정 시점의 자산보유액이 아닌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다기간에 걸쳐 관측된 자산의 평균값(평균 금융자산($\overline{W_i^F}$), 부동산($\overline{W_i^H}$) 및 부채($\overline{W_i^D}$))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자산 수준이 아닌 자산별 보유액에 따라 그룹화한 자산 보유 분위 더미변수(D_{ji}^F , D_{ji}^H 및 D_{ji}^D)를 사용하여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서 $\overline{W_i^k}$ 는 개인 i 가 T_i 기간 동안 보유한 k -타입 자산 규모의 기간중 평균값을 나타내며 D_{ji}^k 는 개인 i 가 보유한 자산 k 의 평균 보유액($\overline{W_i^k}$)이 \underline{W}^k 보다 크거나 같고 \overline{W}^k 보다는 작아 j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본고는 자산보유 규모에 따라 1분위(하위 25%)부터 4분위(상위 25%)까지로 구분하는 4개의 그룹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회귀계수 β_j^k 는 여타 조건이 동일할 때 부모의 자산 k 의 평균 보유액이 4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비 j 분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종속변수 수준에 기대되는 차이를 나타낸다.

종속변수(Y_{it})는 분석 목적에 따라 자녀 i 의 t 시점에서의 졸업 직후(현재 학력 수준과 최종학력 수준이 같아지는 시점) 근로 여부, 첫 일자리의 질, 첫 일자리 및 근속연수(1년 차, 3년 차 및 5년 차)에 따른 월 소득 수준(로그)을 나타낸다. X_{it} 는 시간가변적인 인구사회적 통제변수들로서 종속변수가 관측된 시점에서의 건강 상태, 자녀 세대의 연령, 거주지역(서울, 경기도, 광역도시 및 여타 지역) 더미변수를 포함한다. Z_i 는 시간불변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로 성별, 교육 수준, 형제자매 존재 여부 및 대학 입학시험(학력고사 혹은 수학능력고사)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¹²⁾

12) 본고는 응답자의 최종 교육 수준을 포착하기 위해 교육연수가 아닌 교육 수준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교육연수 또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부모)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 4년제 졸업 및 석사 이상인지 여부(고졸미만, 고졸 및 2년제 이상 대학 졸업)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Ⅲ.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절에서는 부모의 자산 보유 형태별 연계성 및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를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형태별 자산 및 부채 보유 <Table 3>과 <Table 4>는 부모의 자산 형태별 보유 분위 간 결합확률분포이며 이를 통해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보유는 한 형태의 부를 대규모로 보유한 가구이더라도 항상 다른 형태의 부를 다량으로 보유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정 자산 보유에 있어 동일한 그룹에 속한 가구 간에 존재하는 여타 자산 보유에서의 이질성은 서로 다른 자산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를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부동산과 금융자산간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보유 규모도 크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상위 및 최하위 분위에 속하는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4분위에 속하는 부동산 보유 가구 중 동일한 분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47.3%인 반면 1분위의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1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분위의 부동산 보유 가구 중 49.8%가 금융자산 역시 최하위 분위에 속하며 3분위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24% (3분위 15.1%, 4분위 8.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분위 및 3분위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 중 30%를 넘는 가구들이 동일한 분위의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며 자신의 부동산 분위보다 한 분위 높은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모두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by parental housing asset and financial asset holdings

		Financial assets quartile			
		1 st	2 nd	3 rd	4 th
Housing assets quartile	1 st	12.5%	6.7%	3.8%	2.1%
	2 nd	6.2%	8.0%	7.3%	3.6%
	3 rd	3.7%	5.8%	7.9%	7.6%
	4 th	2.7%	4.5%	6.1%	11.7%

다음으로 <Table 4>는 부채 보유 분위와 각각의 자산에 대한 보유 분위 간 결합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확인 결과 부채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분위에 속하는 부동산 보유 가구 중 60%를 소폭 하회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부채 분위에 속하며 여타 부동산 분위에 속한 가구들 또한 30%에 근접한 가구가 동일 분위의 부채 보유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부동산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부채 수준도 낮아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부동산 보유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와 금융자산 간에는 부동산처럼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례로 1분위의 부채 보유 가구가 1분위의 금융자산 보유 가구에 해당할 확률은 18.7%인 반면, 동 가구가 최상위 금융자산 보유 분위에 속할 확률은 32.3%에 달한다. 또한, 부채 수준이 4분위에 속한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4분위에 속할 확률이 여타 분위에 속할 확률보다 높지만, 이는 부동산의 경우와 비교할 때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Table 4>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by parental debt and asset holdings

		Housing assets quartile				Financial assets quartile			
		1 st	2 nd	3 rd	4 th	1 st	2 nd	3 rd	4 th
Debt quartile	1 st	8.8%	7.3%	6.0%	3.0%	4.6%	5.4%	6.8%	8.0%
	2 nd	9.4%	6.9%	5.7%	3.0%	7.3%	7.1%	6.3%	4.4%
	3 rd	4.8%	8.1%	7.4%	4.8%	7.1%	7.7%	5.2%	5.1%
	4 th	2.1%	2.7%	6.0%	14.1%	6.0%	4.8%	6.7%	7.4%

부모의 자산 보유-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Table 5>의 부모의 자산 보유 분위에 따른 자녀의 첫 일자리 질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자녀의 성과는 부동산 및 부채보다는 금융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근로 형태와 부모의 부채 및 부동산 보유 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금융자산 보유 분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정규직이면서 동시에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양질의 일자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의 자산 보유 형태와 고등교육을 마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산 보유 형태별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5〉 Child's outcomes across parental wealth quartiles¹⁾

Parental wealth quartil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²⁾
		Paid worker ²⁾	(Decent job) ³⁾	Self-employed ²⁾	Unemployed ²⁾	
Financial assets						
1 st	76.4%	64.3%	(14.6%)	2.5%	8.2%	23.6%
2 nd	72.5%	63.1%	(16.7%)	1.1%	7.6%	27.5%
3 rd	71.1%	62.4%	(16.9%)	0.9%	6.9%	28.9%
4 th	73.9%	64.0%	(26.2%)	1.8%	7.3%	26.1%
Housing assets						
1 st	76.7%	68.2%	(12.8%)	0.9%	7.1%	23.3%
2 nd	71.2%	61.6%	(17.5%)	1.4%	7.1%	28.8%
3 rd	74.1%	63.6%	(24.1%)	1.8%	8.2%	25.9%
4 th	71.9%	60.4%	(20.8%)	2.3%	7.6%	28.1%
Debt						
1 st	76.5%	68.7%	(19.9%)	1.8%	5.3%	23.5%
2 nd	71.2%	58.4%	(18.4%)	1.4%	10.7%	28.8%
3 rd	73.3%	63.9%	(17.9%)	0.5%	7.5%	26.7%
4 th	73.0%	62.9%	(28.9%)	2.7%	6.4%	27.0%

Notes: 1) Each figure is measured at the first wave when the child's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is equal to their final one.

2) Each group's observation / total observations.

3) Decent job holders / paid workers.

〈Table 6〉은 부모의 자산 형태에 따른 보유 분위와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 소득수준 간의 이행행렬을 나타낸다. 각 행은 해당 자산 분위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첫 직장에서 받는 소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만약 부모의 해당 자산 보유와 자녀의 근로소득과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각 소득분위에 속할 조건부 확률은 25%이며 반대로 완전한 상관성이 있다면 주 대각행렬이 모두 100%의 값을 가진다. 즉, 부모의 해당 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자녀의 근로소득 수준이 완전하게 결정된다. 분석 결과 부모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과 자녀의 근로소득 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 부채와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4분위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보유한 자녀의 근로소득이 동일 분위에 머무르는 경우는 각각 34.8%, 32.3%로 상당히 높지만, 부채의 경우 동 비율이 30%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의 자산 규모가 1분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4분위

에서와 유사하게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부채의 경우 25%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모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보유액이 2~3분위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이 동일 혹은 한 단계 더 높은 분위에 속할 확률이 모두 50%를 상회하는 반면, 2~3분위에 해당하는 부채의 경우는 동일 혹은 한 단계 더 높은 분위에 속할 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ransitional matrix between parental wealth quartile and their child's salary quartile

		Child's salary quartile									
		(%)	1 st	2 nd	3 rd	4 th	(%)	1 st	2 nd	3 rd	4 th
Parental wealth quartile	1 st	F	36.2	27.1	19.5	17.2	H	38.3	25.4	19.4	16.9
	2 nd	i					a				
	3 rd	n	27.2	27.5	29.1	16.2	s	27.1	24.5	28.1	20.3
	4 th	a	21.8	23.3	26.4	28.5	s	19.2	26.7	26.7	27.5
		s	14.9	22.9	27.4	34.8	e	14.4	24.4	28.9	32.3
		e					t				
		t									
		s									
		c									
		i									
		a									
		l									

2. 흡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본 절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간에 여전히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Table 10〉은 각각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와 자녀가 졸업 직후 근로 중인지 여부, 첫 일자리의 질, 첫 소득 수준 및 소득상승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7〉~〈Table 9〉의 열 1 및 〈Table 10〉은 식 (2)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기본모형)이다. 기본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수저 디스카운트’ 효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금융자산과 노동시장에서 자녀의 질적인 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교육 수준, 성별 등 인구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졸업 직후 직장으로의 이행 여부 및 첫 일자리의 질

졸업 직후 근로 여부 〈Table 7〉의 첫 열은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졸업 직후 직장으로 이행 여부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정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졸업 직후 자녀의 취업(자영업 포함)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의 형태와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즉 ‘흡수저’ 자녀인지와 졸업 직후 양적인 노동시장 성과 측면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일자리의 질¹⁴⁾ 〈Table 8〉는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첫 일자리 질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5) 16)} 추정 결과 금융자산 규모가 상위 50% 이내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에서 첫 직장경력을 시작하는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최상위 분위에 속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1분위 및 2분위에 속한 부모를 둔 자녀가 양질의 첫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각각 7.6%p 및 6.7%p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5% 및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부모의

13) 선행연구는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관련하여 엇갈리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Algan et al. (2003)은 프랑스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보유는 직업탐색 기간을 늘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현성 (2010)은 다양한 인구·사회적 변수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변수, 대학의 질 등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고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의 첫 직장 이행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4) 본고는 일자리의 질 측정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를 제외하였다. 그런데 임금 근로와 자영업 부문 간 선택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노동시장 최초진입 과정의 청년층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선택 편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청년 취업자 중(무급종사자 제외) 4.0%만이 자영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급수준은 212.5만원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월급(212.3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추정결과에 선택 편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5) 본고는 일자리의 질을 정의하기 위해서 전체 종업원 수가 300인을 상회하는 동시에 정규직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관측치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종업원 수를 응답하지 않거나 자영업에 종사함에 따라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치 수가 감소하였음을 밝힌다.

16)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 중 21.3%가 양질의 일자리를 첫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부채 보유 규모가 각각 4분위에 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타 분위에 해당하더라도 자녀가 양질의 첫 직장에서 근무할 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직장탐색 과정에서 직면하는 유동성 제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Caliendo et al., 2013; Filges et al., 2015; Gerards and Welters, 2020; Van der Klaauw and Van Ours, 2013). 자녀는 학업을 마치고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최대한 업무 적합도 및 발전 가능성이 큰 일자리에서 근무하기를 원할 것인데 보유한 인적자본이 동일한 경우 추구하는 일자의 질이 높을수록 동일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감소하므로 구직과정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득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추가적인 직장탐색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동성 제약의 완화 측면에서 금융자산이 여타 자산보다 자녀 첫 일자의 질과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7) 18)} 반면, 부동산 및 부

17) 일반적으로 개인이 현재 구속력 있는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런데 KLIPS는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KLIPS는 대학 수학 기간 중 등록금 마련 방법을 조사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을 받은 개인들은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개인들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후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는 비율이 높을 여지가 존재한다. 즉, 학자금대출을 받은 개인은 상환의무 등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중 유동성 제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와 자녀의 고등교육 수학 기간 중 학자금융자를 받았는지 여부 간 관계를 점검해본 결과 상위 50% 이내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를 둔 자녀의 9.8%가 학자금융자(3분위 9.6%, 4분위: 10.1%)를 받은 반면, 1분위 및 2분위에 속한 자녀는 각각 27.0%, 16.7%가 학자금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하위 50% 이내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졸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현재 근로자가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 수준 혹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과 비교해 '수준이 낮은 편이다' 혹은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 등 근로자가 하향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분위별로 첫 직장에서의 하향취업한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상위 50% 이내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를 둔 자녀의 16.2%가 하향취업(3분위 15.9%, 4분위: 16.5%)한 반면, 1분위 및 2분위에 속한 자녀는 각각 23.8%, 17.2%가 하향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산과 업무 적합도 간에

채가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교육 수준 등 여타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경로 및 부모의 부채로 인한 추가적인 제약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 및 근로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가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 수준 〈Table 9〉은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 수준(첫 일자리-첫 소득)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¹⁹⁾ 추정 결과 고용의 질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금융자산이 자녀의 첫 일자리-첫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부동산 및 부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산 보유와 관련해서 여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상위의 분위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첫 직장의 첫 소득 수준 대비 1분위에 속한 자녀의 소득 수준은 10.7% 낮으며, 하위 25~50%일 경우 5.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는 4분위 부모의 자녀에 비해 소득 수준이 1.9% 높았지만, 관련 회귀계수 추정치는 1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성 제약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이며, 3분위 이상에 속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의 자녀는 유동성 제약이 이들의 근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 경력에 따른 소득 변화 〈Table 10〉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과 부모의 경제력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0) 21)} 본 회귀분석에서는 식 (2)에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 회귀분석에 사용된 첫 일자리에서의 첫 월평균 소득(로그) 및 분산은 각각 5.12 및 0.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Table 10〉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첫 소득(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이 관측되는 시점을 0년 차로 간주하고 이후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j는 2000년 최종 학위를 취득하고 1년간 직장탐색 기간을 거친 후 2년 차에 첫 일자리(0년)를 가졌고 3년 차(+1년)까지 근무 후 1년을 실업 상태로 있다가 5년 차에(+3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이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의 소득(로그)은 +1년, +3년 및 +5년 회귀분석에서 모두 사용된다.

21) 회귀분석에 사용된 +1년, +3년 및 +5년 차의 월평균 소득(로그)은 각각 5.24, 5.35 및 5.43

추가함으로써 첫 일자리의 경험이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포착하도록 하였으며, 연령 더미변수 대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첫 일자리를 가진 시점에서부터 각 조사 시점마다 1씩 증가하도록 설정한 근로 경험 변수(제곱항 포함)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²²⁾

추정 결과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 수준과 현재 소득과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지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경제력이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첫 소득을 통해 자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 수준 및 여타 조건들을 통제하더라도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4분위에 속한 자녀 대비 여타 분위에 속한 자녀는 여전히 소득 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자녀의 노동시장 최초진입 이후 경력개발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분위 및 2분위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는 여타 조건이 같더라도 최상위 분위 부모의 자녀 대비 직장경력이 1년 차(첫 일자리에서 첫 소득을 받은 시점을 0년 차로 간주)일 때 소득 수준이 6.5% 및 4.4%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벌어져 5년 차에는 동 격차가 12.8% 및 11.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자산 보유 3분위에 속한 경우에는 1년차 및 3년차에는 각각 4.0% 및 5.4% 낮지만 5년 차에는 4분위에 속하는 자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동산 및 부채 보유 규모 정도가 근로 경력에 따른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가 자녀의 첫 소득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 변화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 앞서 언급한 직장탐색 과정과 유동성 제약의 역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유동성 제약에 처하지 않고

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동 근로 경력 변수는 잠재적 근속연수라고도 불린다. 잠재적 근속연수는 특정 시점부터 1의 값을 가지며 이후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년 1씩 증가하는 형태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근로자가 최초 노동시장 진입 이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잠재적 근속연수는 실제 업무경력과 동일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 혹은 실업을 경험하였을 경우 잠재적 근속연수는 실제 업무경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선택 등이 반영된 업무경력 혹은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과는 달리 잠재적 근속연수를 이용할 경우 개인의 노동 선택과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임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능한 청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의 특성과 보다 부합하는 일자리와의 매칭을 통해 초기 경력개발 단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동 일자리에서 인적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축적(learning by doing)할 수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임금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Becker, 2009; Baert et al., 2013; Lise and Postel-Vinay, 2020). 즉, 경력개발 초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혹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일자리와 매칭이 이루어질 경우 적합한 일자리와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 달성할 수 있었을 소득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디게 늘어날 것이다.^{23) 24)}

(3) 시사점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수저’ 부모는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 및 임금에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는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부동산과 부채의 보유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성 제약이 청년의 구직활동 및 그 결과에 있어 중요하나 부동산이 담보로써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통로로의 역할은 제한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즉,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형태의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직장탐색을 통해 자신이 보유

23) 예를 들어 청년 A와 B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능력 수준이 같고 높은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물 조작 및 대인관계 능력은 낮은 상태라고 가정하자. 만일 청년 A는 인지능력을 주로 사용하는 일자리를 찾았으나 청년 B는 대인관계 능력을 주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매칭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A의 첫 소득이 B보다 높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A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관련 능력을 더 빠르게 축적해 B보다 임금 상승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Lise and Postel-Vinay, 2020).

24)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지만,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감한다.

25)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2,093만 가구 가운데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는 각각 920만 및 854만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다주택 가구는 15.2%인 319만 가구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부모의 대다수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자로서 부동산이 자녀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기능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하고 있는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도가 높은 일자리를 찾고 요구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동 일자리와 매칭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Becker and Tomes, 1979; Loury, 1981). 반면,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일자리 중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므로 유동성 제약이 없는 상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 결과 첫 일자리의 질 뿐만 아니라 첫 임금 및 업무를 통한 경력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자산총액으로 평가한 경제력이 같더라도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에 따라 자녀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Karagiannaki(2017) 및 Van den Heuvel et al. (2022)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즉, 사회경제적 위치의 세대 간 이동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의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자녀가 노동시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자산 보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선형성이 존재하며 이는 유동성 제약이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이전(혹은 세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동성 제약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들은 금융자산 또한 많아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수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간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에 있어 주요한 통로로 인식되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해 부모의 부가 자녀의 양질의 일자리 대한 접근성으로 이어짐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경제력 간 연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특히 이러한 연계성에 있어 부모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동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보다는 자녀의 가치관, 생활 규범, 교육 수준 등과 같은 가족적 배경으로 인해서 체화되어 나타나는 장기적이면서 간접적인 요인들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Conley, 2001; Hill and Duncan, 1987; Huang et al., 2010). 그러므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대 간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3. 강건성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기본모형은 부모가 보유한 자산의 형태별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을 순자산 변수를 사용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산보유액을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단일변수인 순자산만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본모형의 추정계수와 비교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가지는 경제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의 차이에 대해 점검하였다(〈Table 7〉~〈Table 9〉의 열 2).

둘째, 기본모형은 자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능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 회귀식을 통해 계수를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편의 문제를 고려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는지 여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동 변수가 개인 능력의 일부분만을 반영한다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대리변수가 실제 통제하고자 하는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차항과 대리변수 간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부모와 자녀의 능력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대신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를 통제한 후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본모형과 비교하였다(〈Table 7〉~〈Table 9〉의 열 3).

셋째, 자녀의 교육 수준 변수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회귀모형에서 제거하고 계수를 추정하여 기본모형과 비교하였다(〈Table 7〉~〈Table 9〉의 열 4). 이는 교육변수를 통제하는지에 따라 자산 관련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교육 선택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높은 능력을 보유한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큰 도움 없이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교육만으로 현재와 유사한 교육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자녀의 교육 수준 변수의 생략이 자산변수의 계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즉,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변화하는 정도를 통해 자산과 교육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형태별 자산 보유 더미변수 대신 부모의 가구소득 더미를 설

명변수로 사용하였을 경우(〈Table 7〉~〈Table 9〉의 열 5), 금융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보유 분위 더미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열 6) 및 선형확률모형이 아닌 비선형모형(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한계효과를 도출하였을 경우(〈Table 7〉~〈Table 8〉의 열 7) 추정계수의 변화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점검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변수의 사용 여부 및 추정방법 변경에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검증 결과 일부 변수의 추가, 제외 및 대안 변수 사용을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더라도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미미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검증 방법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 경제력의 대리변수로 형태별 자산 보유가 아닌 순자산(열 2) 혹은 부동산(열 6)만을 사용하더라도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모형과 대안 모형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경제 및 정책적 함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세대 간 이동성을 높이는 것인 상황에서 순자산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부모의 순자산(혹은 부동산) 분포를 부유세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실제 시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성과를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저리 대출 및 취업지원금 등을 통해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변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대신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를 통제하거나(열 3)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변수들을 제외(열 4)하더라도 동 변화가 여타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즉, 특정

26)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대신 부모의 교육 수준을 통제한 모형(열 3) 중 종속변수가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하는지 여부인 경우에는 동 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속변수가 첫 일자리의 질 및 첫 소득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

변수에 대한 통제 여부가 주요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의 크기에 일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질적인 해석 및 통계적 유의성 등에 있어서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가구소득으로 주요 설명변수를 대체하거나(열 5) probit 모형으로 추정 방법을 변경(<Table 7>~<Table 8>의 열 7) 하더라도 기본모형과 비교했을 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이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부모의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KLIPS 2~24차(199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의 가난이 자녀의 가난으로 대물림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한 부모의 자녀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임금 상승 경로를 갖기 어려운 ‘흠수저 디스카운트’ 효과가 실재함을 보였다. 이러한 ‘흠수저 디스카운트’의 존재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제약하고 사회계층 세습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잠재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alor and Zeira, 1993). 다시 말해 ‘흠수저 디스카운트’의 장기화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개인의 노력을 통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든 구조로 고착화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층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적합한 직업탐색 및 선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경쟁이 과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보다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

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는 이직의 ‘임금 사다리 효과(Wage-ladder Effect)’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오태희·이장연, 2022).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부모 등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와 첫 매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과 부합하는 일자리로의 이동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흠수저 디스카운트’ 효과로 인해 발생한 격차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소득 간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대다수 선행연구와 달리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부를 축적하는 데 관여되는 여타 관측되거나 혹은 관측되지 않는 다양한 경로들이 존재할 것이며 동 경로들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높은 자산 분위에 속한 부모들은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의 직장선택, 경력개발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Davernport et al., 2021).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흠수저 디스카운트’ 효과가 전반적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부모-자녀 간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에 있어 유동성 제약의 역할에 대한 추가 분석이 수행된다면 세대 간 경제력 이전 경로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뿐만 아니라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7〉 Estimation results: the probability of being in employment after graduation

		Baseline	(1)	(2)	(3)	(4)	(5)	(6)
Financial assets	1 st	-0.006	-	-0.006	-0.003	-	-	-0.004
		(0.034)	-	(0.034)	(0.034)	-	-	(0.035)
	2 nd	-0.025	-	-0.025	-0.021	-	-	-0.026
		(0.033)	-	(0.033)	(0.033)	-	-	(0.032)
	3 rd	-0.033	-	-0.034	-0.030	-	-	-0.029
		(0.031)	-	(0.031)	(0.031)	-	-	(0.030)
Housing assets	1 st	0.059	-	0.059	0.068#	-	0.051	0.061
		(0.038)	-	(0.038)	(0.038)	-	(0.031)	(0.038)
	2 nd	0.015	-	0.015	0.023	-	0.005	0.016
		(0.036)	-	(0.035)	(0.036)	-	(0.031)	(0.035)
	3 rd	0.030	-	0.030	0.033	-	0.023	0.029
		(0.032)	-	(0.032)	(0.032)	-	(0.030)	(0.032)
Debt	1 st	0.011	-	0.011	0.015	-	-	0.011
		(0.033)	-	(0.033)	(0.033)	-	-	(0.034)
	2 nd	-0.041	-	-0.041	-0.032	-	-	-0.041
		(0.034)	-	(0.034)	(0.034)	-	-	(0.033)
	3 rd	-0.006	-	-0.006	-0.003	-	-	-0.008
		(0.032)	-	(0.032)	(0.032)	-	-	(0.032)
Net-worth	1 st	-	0.052	-	-	-	-	-
		-	(0.031)	-	-	-	-	-
	2 nd	-	0.003	-	-	-	-	-
		-	(0.031)	-	-	-	-	-
	3 rd	-	0.016	-	-	-	-	-
		-	(0.030)	-	-	-	-	-
Parental income	1 st	-	-	-	-	-0.047	-	-
		-	-	-	-	(0.033)	-	-
	2 nd	-	-	-	-	0.000	-	-
		-	-	-	-	(0.031)	-	-
	3 rd	-	-	-	-	-0.005	-	-
		-	-	-	-	(0.030)	-	-
College entrance exam	Top-tier	-0.003	-0.001	-	-	-0.010	-0.004	-0.002
		(0.057)	(0.057)	-	-	(0.056)	(0.056)	(0.054)
	Second-tier	0.011	0.011	-	-	0.002	0.010	0.000
		(0.070)	(0.070)	-	-	(0.070)	(0.069)	(0.066)
Female		0.069**	0.066**	0.069**	0.052*	0.068**	0.067**	0.07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6)
Bachelor		-0.086***	-0.081**	-0.086***	-	-0.088***	-0.081**	-0.089
		(0.026)	(0.026)	(0.025)	-	(0.026)	(0.026)	(0.026)
Master or higher		-0.095 [#]	-0.091 [#]	-0.095*	-	-0.097*	-0.091 [#]	-0.110
		(0.049)	(0.049)	(0.048)	-	(0.049)	(0.049)	(0.051)
Health status	Bad	-0.137	-0.14	-0.138	-0.142	-0.146	-0.142	-0.124
		(0.126)	(0.123)	(0.126)	(0.127)	(0.124)	(0.125)	(0.105)
Observations		1,753	1,753	1,753	1,753	1,753	1,753	1,753
R-square		0.05	0.05	0.05	0.05	0.05	0.05	0.04

Notes: 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is.

2) All specifications control a set of dummy variables indicating age, residence, non-respondents to college entrance exam, and years.

3) #,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0.1% levels, respectively.

(Table 8) Estimation results: the quality of first job

		Baseline	(1)	(2)	(3)	(4)	(5)	(6)
Financial assets	1 st	-0.076* (0.039)	-	-0.062 (0.039)	-0.079* (0.039)	-	-	-0.078* (0.037)
	2 nd	-0.067# (0.036)	-	-0.058 (0.036)	-0.070# (0.036)	-	-	-0.061# (0.033)
	3 rd	-0.030 (0.036)	-	-0.027 (0.036)	-0.030 (0.036)	-	-	-0.023 (0.032)
Housing assets	1 st	-0.059 (0.041)	-	-0.045 (0.042)	-0.068 (0.041)	-	-0.091** (0.033)	-0.063 (0.040)
	2 nd	-0.034 (0.040)	-	-0.026 (0.041)	-0.039 (0.041)	-	-0.053 (0.035)	-0.031 (0.037)
	3 rd	0.005 (0.037)	-	0.014 (0.037)	0.006 (0.037)	-	-0.003 (0.035)	0.006 (0.033)
Debt	1 st	0.022 (0.037)	-	0.034 (0.037)	0.020 (0.037)	-	-	0.021 (0.034)
	2 nd	-0.016 (0.037)	-	-0.010 (0.037)	-0.022 (0.037)	-	-	-0.020 (0.035)
	3 rd	0.017 (0.035)	-	0.020 (0.035)	0.011 (0.035)	-	-	0.017 (0.033)
Net-worth	1 st	-	-0.096*** (0.035)	-	-	-	-	-
	2 nd	-	-0.054 (0.035)	-	-	-	-	-
	3 rd	-	-0.017 (0.035)	-	-	-	-	-
Parental income	1 st	-	-	-	-0.116** (0.036)	-	-	-
	2 nd	-	-	-	-0.108** (0.034)	-	-	-
	3 rd	-	-	-	-0.060 (0.033)	-	-	-
College entrance exam	Top-tier	0.211** (0.070)	0.218** (0.070)	-	-	0.221** (0.071)	0.217** (0.070)	0.164** (0.052)
	Second-tier	0.094 (0.085)	0.087 (0.086)	-	-	0.097 (0.084)	0.088 (0.085)	0.076 (0.065)
Female		-0.030 (0.029)	-0.031 (0.029)	-0.035 (0.029)	-0.027 (0.027)	-0.030 (0.029)	-0.030 (0.029)	-0.032 (0.027)
Bachelor		0.011 (0.028)	0.014 (0.028)	0.012 (0.028)	-	0.009 (0.028)	0.013 (0.028)	0.010 (0.027)
Master or higher		0.053 (0.063)	0.054 (0.063)	0.074 (0.062)	-	0.053 (0.063)	0.054 (0.063)	0.048 (0.054)
Health status	Bad	-0.182** (0.070)	-0.178** (0.066)	-0.203** (0.071)	-0.191** (0.070)	-0.179** (0.068)	-0.179** (0.066)	-0.248# (0.141)
Observations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R-square			0.08	0.09	0.07	0.08	0.08	0.08

Notes: 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is.

2) All specifications control a set of dummy variables indicating age, residence, non-respondents to college entrance exam, and years.

3)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levels, respectively.

〈Table 9〉 Estimation results: the log starting salary from first job

		Baseline	(1)	(2)	(3)	(4)	(5)
Financial assets	1 st	-0.107**	-	-0.090*	-0.110**	-	-
		(0.036)	-	(0.037)	(0.037)	-	-
	2 nd	-0.053 [#]	-	-0.033	-0.054 [#]	-	-
		(0.033)	-	(0.033)	(0.033)	-	-
	3 rd	0.019	-	0.038	0.023	-	-
		(0.031)	-	(0.031)	(0.032)	-	-
Housing assets	1 st	-0.061	-	-0.039	-0.079*	-	-0.098**
		(0.039)	-	(0.039)	(0.040)	-	(0.034)
	2 nd	-0.044	-	-0.024	-0.052	-	-0.058 [#]
		(0.036)	-	(0.036)	(0.037)	-	(0.033)
	3 rd	0.000	-	0.014	-0.001	-	-0.003
		(0.033)	-	(0.033)	(0.034)	-	(0.032)
Debt	1 st	0.018	-	0.024	0.010	-	-
		(0.035)	-	(0.035)	(0.036)	-	-
	2 nd	0.016	-	0.020	-0.003	-	-
		(0.034)	-	(0.034)	(0.034)	-	-
	3 rd	-0.005	-	-0.003	-0.015	-	-
		(0.033)	-	(0.033)	(0.033)	-	-
Net-worth	1 st	-	-0.123***	-	-	-	-
		-	(0.033)	-	-	-	-
	2 nd	-	-0.087**	-	-	-	-
		-	(0.032)	-	-	-	-
	3 rd	-	-0.024	-	-	-	-
		-	(0.031)	-	-	-	-
Parental income	1 st	-	-	-	-	-0.158***	-
		-	-	-	-	(0.036)	-
	2 nd	-	-	-	-	-0.133***	-
		-	-	-	-	(0.030)	-
	3 rd	-	-	-	-	-0.034	-
		-	-	-	-	(0.030)	-
College entrance exam	Top-tier	0.215***	0.227***	-	-	0.235***	0.228***
		(0.055)	(0.055)	-	-	(0.053)	(0.054)
	Second-tier	0.069	0.067	-	-	0.064	0.076
		(0.055)	(0.053)	-	-	(0.053)	(0.053)
Female		-0.081**	-0.081**	-0.084**	-0.059*	-0.077**	-0.082**
		(0.026)	(0.026)	(0.027)	(0.026)	(0.026)	(0.026)
Bachelor		0.103***	0.100***	0.101***	-	0.095***	0.100***
		(0.025)	(0.025)	(0.026)	-	(0.025)	(0.025)
Master or higher		0.237***	0.229***	0.257***	-	0.227***	0.233***
		(0.055)	(0.056)	(0.054)	-	(0.056)	(0.056)
Health status	Bad	0.065	0.045	0.088	0.064	0.097	0.044
		(0.139)	(0.142)	(0.138)	(0.122)	(0.147)	(0.146)
Observations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R-square		0.27	0.26	0.27	0.23	0.27	0.26

Notes: 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is.

2) All specifications control a set of dummy variables indicating age, residence, non-respondents to college entrance exam, and years.

3) #,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0.1% levels, respectively.

〈Table 10〉 Estimation results: the log salary across different work experiences

		Work experience +1 year	+3 years	+5 years
Financial assets	1 st	-0.065** (0.024)	-0.109** (0.038)	-0.128** (0.040)
	2 nd	-0.0441* (0.022)	-0.097** (0.030)	-0.111** (0.035)
	3 rd	-0.040# (0.021)	-0.054# (0.030)	-0.056 (0.035)
Housing assets	1 st	-0.040 (0.025)	-0.018 (0.038)	-0.020 (0.045)
	2 nd	-0.006 (0.024)	0.039 (0.036)	-0.002 (0.039)
	3 rd	-0.014 (0.022)	0.019 (0.031)	-0.038 (0.033)
Debt	1 st	0.0123 (0.022)	-0.0183 (0.037)	-0.0413 (0.040)
	2 nd	0.013 (0.024)	-0.013 (0.034)	-0.016 (0.037)
	3 rd	0.013 (0.022)	0.009 (0.032)	-0.031 (0.038)
Starting salary from first job		0.572*** (0.031)	0.435*** (0.035)	0.356*** (0.038)
College entrance exam	Top-tier	0.105** (0.040)	0.033 (0.065)	0.065 (0.055)
	Second-tier	0.023 (0.038)	0.080* (0.040)	0.082 (0.061)
Female		-0.089*** (0.016)	-0.132*** (0.022)	-0.166*** (0.025)
Bachelor		0.081*** (0.017)	0.074*** (0.022)	0.088** (0.028)
Master or higher		0.103** (0.037)	0.086# (0.050)	0.175*** (0.044)
Health status Bad		0.036 (0.106)	-0.037 (0.088)	-0.011 (0.108)
Observations		1,202	936	676
R-square		0.58	0.41	0.41

Notes: 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is.

2) All specifications control the potential work experience (and its squared term) and a set of dummy variables indicating residence, non-respondents to college entrance exam, and years.

3) #,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0.1% levels, respectively.

■ 참 고 문 헌

1. 김진영 · 김성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과제,” 『응용경제』, 제15권 제2호, 2013, pp. 61-106.
(Translated in English) Kim, Jin Yeong, and Sung Tai Kim, “On the Educational Policy for Fostering Social Mobility,”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 15, No. 2, 2013, pp. 61-106.
2. 오태희 · 이장연,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통한 임금 사다리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70집 제3호, 2022, pp. 97-141.
(Translated in English) Oh, Taehee, and Jangyoun Lee, “Can Job Turnover Help Young Korean Workers Climb the Wage Ladder?”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70, No. 3, 2022, pp. 97-141.
3. 이왕원 · 김문조, “한국 청년층의 취업준비와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0권 제1호, 2015, pp. 187-223.
(Translated in English) Lee, Wang Won, and Mun Cho Kim, “The Levels of Employment Expecta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Korean Youth: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 10, No. 1, 2015, pp. 187-223.
4. 이현성,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經濟研究』, 제31권 제2호, 2010, pp. 47-84.
(Translated in English) Lee, Hyun Sung, “Effects of Household Income on 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31, No. 2, 2010, pp. 47-84.
5. Algan, Y., A. Chéron, J. O. Hairault, and F. Langot, “Wealth Effect on Labor Market Transition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 6, No. 1, 2003, pp. 156-178.
6. Baert, S., B. Cockx, and D. Verhaest, “Overeducation at the Start of the Career: Stepping Stone or Trap?” *Labour Economics*, Vol. 25, 2013, pp. 123-140.
7. Becker, G. S., and N. Tomes,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6, 1979, pp. 1153-1189.
8. Becker, G.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9. Belfield, C., J. Britton, F. Buscha, L. Dearden, M. Dickson, L. Van Der Erve, and Y. Zhu, “The Relative Labour Market Returns to Different Degrees,” IFS Research Report, 2018.
10. Blanden, J., P. Gregg, and S. Mach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Report Supported by the Sutton Trust,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5.
11. Brenner, J., “Life-cycle Variations in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and Lifetime Earnings: Evidence for German Natives and Guest Workers,” *Labour Economics*, Vol. 17, No. 2, 2010, pp. 392-406.

12. Brooks-Gunn, J., A. S. Fuligni, and L. Berlin (Eds.), *Early Chil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Profiles of Current Research Initiatives*, Teachers College Press, 2003.
13. Caliendo, M., K. Tatsiramos, and A. Uhlenhorff, "Benefit Duration, Unemployment Duration and Job Match Quality: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28, No. 4, 2013, pp.604-627.
14. Charles, K. K., and E. Hurst, "The Correlation of Wealth Across Gene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1, No. 6, 2003, pp.1155-1182.
15. Conger, R. D., K. J. Conger, and M. J. Martin,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2, No. 3, 2010, pp.685-704.
16. Conley, D., "Capital for College: Parental Assets and Post-secondary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Vol. 74, No. 1, 2001, pp.59-72.
17. Currie, J., and B. C. Madrian, "Health, Health Insurance and the Labor Market,"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1999, pp.3309-3416.
18. Dahl, G. B., and L. Lochner.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2, No. 5, 2012, pp.1927-1956.
19. Emmenegger, P., S. Häusermann, B. Palier, and M.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UP USA, 2012.
20. Filges, T., L. P. Geerdsen, A. S. D. Knudsen, and A. M. K. Jørgensen, "Unemployment Benefit Exhaustion: Incentive Effects on Job-finding Rat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 25, No. 1, 2015, pp.21-43.
21. French, E., "The Effects of Health, Wealth, and Wages on Labour Supply and Retirement Behaviour,"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2, No. 2, 2005, pp.395-427.
22. Galor, O., and J.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0, 1993, pp.35-52.
23. Gerards, R., and R. Welters, "Liquidity Constraints, Unemployed Job Search and Labour Market Outcom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2, No. 3, 2020, pp.625-646.
24. Hill, M. S., and G. J. Duncan, "Parental Family Income and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6, No. 1, 1987, pp.39-73.
25. Huang, J., B. Guo, Y. Kim, and M. Sherraden, "Parental Income, Assets, Borrowing Constraints and Children's Post-secondary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32, No. 4, 2010, pp.585-594.
26. Karagiannaki, E., "The Effect of Parental Wealth on Children's Outcomes in Early Adulthood,"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 15, No. 3, 2017, pp.217-243,
27. Keister, L. A., and H. Y. Lee, "The One Percent: Top Incomes and Wealth in Sociological Research," *Social Currents*, Vol. 1, No. 1, 2014, pp.13-24.
28. Lise, J. and F. Postel-Vinay, "Multidimensional Skills, Sorting,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10, No. 8, 2020, pp.2328-2376.

29. Loury, G. C.,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Econometrica*, Vol. 49, No. 4, 1981, pp. 843-867.
30. Luft, H. S., "The Impact of Poor Health on Earning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7, No. 1, 1975, pp. 43-57.
31. Pfeffer, F. T., "Growing Wealth Gaps in Education," *Demography*, No. 55, Vol. 3, 2018, pp. 1033-1068.
32. Poterba, J. M., S. F. Venti, and D. A. Wise, "The Asset Cost of Poor Health,"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Vol. 9, 2017, pp. 172-184.
33. Reynolds, A. J., "Grade Retention and School Adjustment: An Explanatory 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14, No. 2, 1992, pp. 101-121.
34. Shanks, T. R. W., "The Impacts of Household Wealth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overty*, Vol. 11, No. 2, 2007, pp. 93-116.
35. Sherraden, M., *Inclusion in the American Dream: Assets, Poverty,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6. Smith, E. P., C. M. Connell, G. Wright, M. Sizer, J. M. Norman, A. Hurley, and S. N. Walker, "An Ecological Model of Home, School, and Community Partnership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Vol. 8, No. 4, 1997, pp. 339-360.
37. Spilerman, S.,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2000, pp. 497-524.
38. Solon, G.,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No. 3, 1992, pp. 393-408.
39. Van den Heuvel, M., J. Ryckebusch, K. Schoors, and T. Roukny, "Financial Wealth and Early Income Mo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9, No. 1, 2022, pp. 1-10.
40. Van der Klaauw, B., and J. C. Van Ours, "Carrot and Stick: How're Employment Bonuses and Benefit Sanctions Affect Exit Rates from Welfare,"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28, No. 2, 2013, pp. 275-296.
41. Wiborg, Ø. N., *Family Wealth and School Grades in Norway: Exploring how Immediate and Extended Family Wealth Matters for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In *Social Inequality Across the Generations*,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42. Zhan, M., "Assets,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28, No. 8, 2006, pp. 961-975.
43. Zhan, M., and M. Sherraden, "Assets, Expectations, and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Female-headed Households," *Social Service Review*, Vol. 77, No. 2, 2003, pp. 191-211.

〈부록 A〉

〈Table A1〉은 부모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 규모에 따른 자녀의 최종학력 수준의 분포를 나타낸다. 동 분포는 자산의 형태별로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자녀가 4년제 이상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비중을 살펴보면 부모가 더 높은 경제력을 보유할수록 자녀의 교육 혹은 인적자본 축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부동산 보유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 일수록 4년제 이상 대학에서 학위 받는 비중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액이 상위 25%인 경우 하위 25%에 비해 대졸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약 20.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 상위 25%보다 상위 25~50%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0.9% 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대졸 이상 학위를 받았다. 즉,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결정에 있어 부모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금융자산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 보유 상위 그룹에 해당할수록 자녀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는 비중이 더 높은 반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50% 이내에 속한 부모의 자녀들이 더 낮은 비율로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1〉 Child's educational attainment across different parental wealth quartiles

Quartile	Housing assets				Financial assets			
	Associate	Bachelor or higher			Associate	Bachelor or higher		
			Bachelor	Higher			Bachelor	Higher
1 st	35.7%	64.3%	54.7%	9.6%	37.7%	62.3%	57.7%	4.6%
2 nd	30.8%	69.2%	55.1%	14.1%	27.4%	72.6%	60.5%	12.1%
3 rd	29.8%	70.2%	61.6%	8.6%	20.1%	79.9%	68.9%	11.0%
4 th	15.7%	84.3%	76.9%	7.5%	21.0%	79.0%	65.3%	13.6%

한편 〈Table A2〉는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자녀의 최종학력 및 대학 입학시험 점수를 나타낸다. 동 표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 및 대입 수학능력 시험 점수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사 및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대학 입

학시험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A2〉 Transitional matrix between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ir child's educational attainment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Child's educational attainment and college entrance exam score				
	Associate		Bachelor or higher		Top-tier score
			Bachelor	Master or higher	
High school or below	40.6%	59.4%	52.6%	6.8%	4.2%
Associate	25.6%	74.4%	66.7%	7.8%	4.4%
Bachelor or higher	21.0%	79.0%	70.0%	9.1%	7.1%

〈부록 B〉

우리나라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하나 가구 수는 50% (2021년 기준 49.5%)에 달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52.7% (2020년 GRDP 기준)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상당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등 노동시장 성과가 여타 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록 B〉에서는 전체 분석 대상 표본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자산 보유 형태별 연계성과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가 표본을 수도권에 거주 중인 자녀로 한정하였을 때와 비교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였다.^{27) 28)} 〈Table B1〉~〈Table B4〉는 먼저 본문에서 설명한 전체 표본을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이어서 자녀가 수도권에 거주 중인 표본만을 사용하여 관련 통계치 및 실증분석 결과를 새롭게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27) 이때 사용한 부모의 자산 형태별 분위는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산출된 분위 변수에 자녀의 수도권에 거주 조건을 부과하여 도출하였다.

28) 자녀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데 부모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은 0.8%에 그친 반면, 자녀와 부모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8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가 상이할 수 있더라도 자녀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자산간 결합확률분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형태별 자산 및 부채 보유 <Table B1>과 <Table B2>는 전체와 수도권 거주 자녀를 둔 부모의 자산형태별 보유 분위 간 결합확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동산과 금융자산간 상관관계를 보면(<Table B1>) 수도권 거주 자녀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분포는 전체 표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거주 자녀를 둔 부모중 35.8% 및 28.8%가 4분위 및 3분위의 부동산 보유 가구에 속하며 하위 50%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35.4% (1분위 18.8%, 2분위 16.6%)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거주 자녀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분위가 1~4분위에 속하는 비중은 24.2~25.6% 수준으로 전체 표본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B1>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by parental housing asset and financial asset holdings

		Financial assets quartile			
		1 st	2 nd	3 rd	4 th
Housing assets quartile	All				
	1 st	12.5%	6.7%	3.8%	2.1%
	2 nd	6.2%	8.0%	7.3%	3.6%
	3 rd	3.7%	5.8%	7.9%	7.6%
	4 th	2.7%	4.5%	6.1%	11.7%
	Seoul metropolitan area (SMA)				
	1 st	10.9%	5.2%	1.7%	1.1%
	2 nd	5.2%	5.2%	4.3%	1.9%
	3 rd	4.8%	7.9%	9.2%	6.8%
	4 th	4.1%	6.9%	9.0%	15.7%

다음으로 <Table B2>는 부채 보유 분위와 각각의 자산에 대한 보유 분위 간 결합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확인 결과 부채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가 수도권 부모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채와 금융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 부모 중 1분위 및 4분위에 속하는 부동산 보유 가구 중 동시에 1분위 및 4분위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4.2%, 10.2%로 전체 표본에서 확인되는 비율을 상당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채와 금융자산 보유 분위가 모두 1분위 및 4분위인 경우의 비율은 전체 표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B2〉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by parental debt and asset holdings

		Housing assets quartile				Financial assets quartile			
		1 st	2 nd	3 rd	4 th	1 st	2 nd	3 rd	4 th
Debt quartile	All								
	1 st	8.8%	7.3%	6.0%	3.0%	4.6%	5.4%	6.8%	8.0%
	2 nd	9.4%	6.9%	5.7%	3.0%	7.3%	7.1%	6.3%	4.4%
	3 rd	4.8%	8.1%	7.4%	4.8%	7.1%	7.7%	5.2%	5.1%
	4 th	2.1%	2.7%	6.0%	14.1%	6.0%	4.8%	6.7%	7.4%
	Seoul metropolitan area (SMA)								
	1 st	4.2%	4.9%	4.2%	6.3%	10.9%	5.2%	1.7%	1.1%
	2 nd	6.3%	5.1%	5.4%	4.0%	5.2%	5.2%	4.3%	1.9%
	3 rd	6.8%	8.7%	6.1%	5.0%	4.8%	7.9%	9.2%	6.8%
	4 th	7.5%	6.6%	8.5%	10.2%	4.1%	7.0%	9.0%	15.7%

부모의 자산 보유-자녀의 첫 직장 근로소득 〈Table B3〉는 부모의 자산 형태에 따른 보유 분위와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 수준 간 이행행렬을 나타낸다. 각 행은 해당 자산 분위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첫 직장에서 받는 소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 중인 자녀로만 표본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의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과 자녀의 근로소득 간 상관관계가 더 높고, 부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분위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를 둔 수도권 거주 자녀의 소득이 동일한 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이 37.5%로 높게 나타나지만, 4분위의 부동산 혹은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자녀가 동일한 분위의 소득 수준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3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부동산 혹은 부채 보유 분위가 4분위인 경우 자녀가 동일한 4분위의 소득분위에 속하는 비율보다 3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B3〉 Transitional matrix between parental wealth quartiles and their child's salary quartiles

Parental wealth quartile	Child's starting salary quartile from first job														
	(%)	1 st	2 nd	3 rd	4 th	(%)	1 st	2 nd	3 rd	4 th	(%)	1 st	2 nd	3 rd	4 th
	All														
1 st		36.2	27.1	19.5	17.2		38.3	25.4	19.4	16.9		24.6	23.4	25.9	26.1
2 nd	Financial assets	27.2	27.5	29.1	16.2	Housing assets	27.1	24.5	28.1	20.3	Debt	30.8	23.9	22.8	22.5
3 rd		21.8	23.3	26.4	28.5		19.2	26.7	26.7	27.5		26.5	26.8	25.5	21.3
4 th		14.9	22.9	27.4	34.8		14.4	24.4	28.9	32.3		18.3	26.7	28.3	26.7
	Seoul metropolitan area (SMA)														
1 st		33.2	31.5	16.8	18.5		35.2	24.1	18.6	22.1		21.5	22.8	27.2	28.5
2 nd	Financial assets	21.9	29.2	33.3	15.6	Housing assets	22.9	28.2	27.5	21.4	Debt	26.6	21.4	26.6	25.3
3 rd		19.0	21.7	28.3	31.0		17.7	27.4	28.4	26.5		19.5	28.7	26.7	25.1
4 th		10.0	23.0	29.5	37.5		13.7	25.6	31.1	29.6		17.1	29.2	28.0	25.7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Table B4〉는 부모의 형태별 자산 보유 분위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 수도권 거주 자녀로만 표본을 제한하더라도 전체 표본을 사용한 본문에서와 유사하게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자녀의 질적인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부동산 및 부채 보유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수도권 거주 자녀의 졸업 직후 근로 이행과 부모의 재력간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흙수저’ 자녀인지와 졸업 직후 양적인 노동시장 성과 측면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의 첫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전체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자산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첫 직장경력을 시작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반면, 수도권 거주 자녀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 4분위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 대비 1분위 자녀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마지막으로 부모의 재력과 자녀의 첫 일자리에 서의 첫 소득 수준 간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 자녀로 표본을 한정할 경우 전

29) 전체 표본 및 수도권 거주 자녀만으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첫 직장경력을 시작하는 비율이 각각 21.3% 및 20.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체 표본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와 첫 소득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타 조건이 같을 때 최상위 분위에 속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를 둔 수도권 거주 자녀 대비 1분위, 2분위 및 3분위 부모를 둔 자녀의 첫 소득이 각각 15.1%, 13.2% 및 7.7%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전체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4분위 금융자산 부모의 자녀와 3분위 자녀 간 임금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B4) Child's outcomes across different parental wealth quartiles

		Employment after graduation		Quality of first job		Starting salary from first job	
		All	SMA	All	SMA	All	SMA
Financial assets quartile	1 st	-0.006	-0.059	-0.076*	-0.104 [#]	-0.107**	-0.151**
		(0.034)	(0.048)	(0.039)	(0.057)	(0.036)	(0.051)
	2 nd	-0.025	-0.070	-0.067 [#]	-0.056	-0.053 [#]	-0.132**
		(0.033)	(0.045)	(0.036)	(0.053)	(0.033)	(0.045)
	3 rd	-0.033	-0.007	-0.030	-0.025	0.019	-0.077 [#]
		(0.031)	(0.042)	(0.036)	(0.052)	(0.031)	(0.042)
Housing assets quartile	1 st	0.059	0.036	-0.059	-0.034	-0.061	-0.054
		(0.038)	(0.057)	(0.041)	(0.059)	(0.039)	(0.055)
	2 nd	0.015	0.065	-0.034	0.033	-0.044	0.018
		(0.036)	(0.049)	(0.040)	(0.058)	(0.036)	(0.049)
	3 rd	0.030	0.056	0.005	0.024	0.000	-0.015
		(0.032)	(0.041)	(0.037)	(0.048)	(0.033)	(0.041)
Debt quartile	1 st	0.011	0.048	0.022	-0.003	0.018	0.028
		(0.033)	(0.047)	(0.037)	(0.052)	(0.035)	(0.052)
	2 nd	-0.041	0.017	-0.016	-0.003	0.016	0.045
		(0.034)	(0.048)	(0.037)	(0.051)	(0.034)	(0.050)
	3 rd	-0.006	0.015	0.017	0.051	-0.005	0.022
		(0.032)	(0.043)	(0.035)	(0.047)	(0.033)	(0.043)
Observations		1,753	734	1,342	599	1,202	513
R-square		0.05	0.07	0.09	0.10	0.27	0.30

Notes: 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is.

2)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levels, respectively.

Being Born with a Wooden Spoon Cannot Guarantee a Golden Future?*

Taehee Oh** · Jangyoun Lee***

Abstract

Since the mid-2010s, the so-called ‘Spoon Class Theory’ that parental wealth is a prerequisite for their children’s success has been widespread throughout Korea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ctual labor market data supports this social perception by building the sample connec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using the 1998-2021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Our empirical results show a clos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financial wealth and their children’s labor market outcomes, such as job quality and wage growth path (the so-called ‘Wooden-spoon Discount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inimiz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at the early stages of the youth labor market by repairing the broken social ladder to support young employees to climb up from the bottom to the top.

Key Words: wooden-spoon discount, youth labor market, KLIPS, liquidity constraints
JEL Classification: J6, J3

Received: Oct. 31, 2022. Revised: Dec. 13, 2022. Accepted: Dec. 26, 2022.

* A special thanks to Jinbang Kim, Hyunduk Suh, Youngjin Yun, Geum-sun Byun, Seung-ryul Lee and conference participants at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ference 2022 for their helpful advice and discussions. We would like to thank the two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comments. Any remaining errors are solely ours.

** First Author, Economist, Research Department, Bank of Korea, 67,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4, Rep. of Korea, Phone: +82-2-759-4431, e-mail: thoh@bok.or.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22012, Rep. of Korea, Phone: +82-32-835-8534, e-mail: jylee22@inu.ac.kr